



홍은 중주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일 중주체육관 광장 유세에서 어린이에게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포스터를 선물받고 있다.



췌는 서울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흥대입구역 인근에서 유세 도중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沈은 제주서 지지호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일 제주대 앞에서 열린 제주 첫 유세를 마친 뒤 청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 종반 표심 교란 ‘가짜뉴스 경계령’

文 ‘국민특보단’·洪 ‘진짜뉴스 코너’·安 ‘가짜 신고센터’ 운영
해수부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인터뷰 공무원 대기발령

5·9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에 들어가면서 유력 후보들은 출저불명의 ‘가짜뉴스’ 경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와 다른 여론조사 지지율과 사실이 아닌 비방 등이 가짜뉴스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으로 유포되면서 막판 표심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달 26일까지 적발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가짜뉴스가 2만1826건으로, 지난 대선보다 약 5.4배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전날 2만60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특보단’을 띄워 24시간 가짜뉴스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필요할 경우 법률 대응에 나설 방침

이라며 다른 후보 측에 ‘경고’도 했다. 박광은 공보단장은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겠지만, 정치 혐오나 선거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문제”라며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려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홈페이지의 ‘진짜뉴스’ 코너를 한 달째 운영하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이 가짜뉴스로 만들어져 유포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달 7일 만들어진 ‘170407-고용정보원 Q&A.hwp’라는 파일이 유포된 적 있다”며 “고용정보원의 공식 답변인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문 후보 측 주장만 담아 유포한 문서였다”고 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전날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 결과’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면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위원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등 각종 네거티브 선거 행태가 더 난무할 것으로 판단해 ‘가짜뉴스 신고센터’ 등 전담조직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대위 법률지원단을 활용한 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담양 지역에서 발생한 문 후보 측의 ‘홍준표발 가짜뉴스’ 살포행위에 대해 선관위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홍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 소속 전남도위원이 유포했다는 게 안 후보 측 주장이다. 한편, 이날도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둘러싸고 대선 캠프 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

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문 후보 측)이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검박해 즉각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를 받아낸 건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SBS가 8시 메인뉴스에서 5분30초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 세월호 지연 인양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했다”며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 후보의 힘이 세긴 세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박광은 선대위 공보단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 “보도가 진실이라면 요즘 세상에 누가 기사를 내리고 사과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SBS의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통화 당시자로 자신신고한 해수부 7급 공무원이 문제가 된 발언이 보류된 인터넷뉴스를 보고 한 말일 뿐, 세월호 인양과 연계해 한 말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해수부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安 “집권시 췌에 경제 부탁 하고파” 췌 “경쟁 후보에게 예의 없는 발언”

안철수-유승민캠프 신경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4일 주고받은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언뜻 서로를 격려하는 듯 보이지만 속내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쟁심이 숨어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유승민 후보 측은 이날 안철수 후보가 당선시 유 후보에게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자고 부탁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함께 경쟁하는 후보에 대한 예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 측의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먹여 살릴 후보는 유승민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유 후보에게 경제분야를 맡기고 싶다면 유승민을 찍으면 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지 대변인은 “대선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아니다. 국민에게도 이런 발언

은 좋지 않게 들린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물거품처럼 꺼지는 것을 안 후보도 느끼는 듯하다”고 뼈있는 말로 꼬집었다. 지 대변인은 이어 “그렇다고 안 후보가 국민을 향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안 후보의 언급에 비교적 점잖게 반응했으나, 다소 불쾌한 기색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유 후보는 이날 신촌 유세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안 후보도 끝까지 완주해서 아름다운 경쟁을 하기 바란다. 그런 덕담을 해주셔 고맙다. 안 후보도 선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언급은 유 후보에게 덕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 단일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자신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는 호소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임동욱기자 tuim@

‘전화위복’ 바른정당... 당원 가입·후원 붐몰

정운천 잔류... 교섭단체 유지
집단탈당으로 비틀거리던 바른정당이 동정여론과 합리·개혁적 보수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힘 입어 반등을 꾀하고 있다. 4일 바른정당 관계자에 따르면 탈당 사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당과 유승민 후보 모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바른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 바른정당의 창당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의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문자 앱(애플리케이션)이 안될 정도로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며 “많은 시민께서 (유세에)와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당원 가입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바른정당이 비로소 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가속화하던 ‘역(逆)탈당 도미노’ 흐름에도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탈당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바른정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정 의원이 잔류를 선언함에 따라 당의 존립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황영철 의원이 전날 탈당을 반박하고 정 의원까지 당에 남으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을 간신히 채우게 된 것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포스트 대선’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지난 2일 황 의원과 함께 탈당을 선언했던 12명의 의원 중 일부도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복당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고 여론의 역풍이 불자 ‘유턴’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대구 무소속 홍의락 민주 복당... 120석 회복

지난해 2월 4·13 총선 공천국면에서 무소속된 데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재선 홍의락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달 이언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지 한 달 만에 120석을 회복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년전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을 떠나 바 있지만, 대선

국민이 종반으로 치닫는 지금 대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복당을 결심했다”며 “대구가 다시 어두운 구시대 정치의 본산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총남지사 지지선언을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당 합류가 접착됐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